

1991
성도의 뜻

발행처
예수 그리스도
교회





-표지 사진-

안젤레 아만드 스톨게스 자매는 자신의 모국에서 선교 사업을 한 많은 아이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자 그 나라의 수도인 포트 오 프란스에 있는 페티온빌 지부의 회원이다. (*복음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된 아이티 성도들*, 10쪽 참조)
사진 : 제드 반 덴 베르그

-어린이란 표지-

사진 : 마르티 마요

성도의벗 II 1991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2

복음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된 아이티 성도들
엘리자베스와 제드 반덴베르그10

팔복 : 구세주에게로 나아가는 길
에스 마이클 윌콕스25

우리의 신앙을 표현함 : 말일성도 예술
리차드 지 오만36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 사랑
로이스 오웬 터커44

청소년란

로지를 축복해 줘 마리 루 하워드8

질의 응답 :
어떻게 노여움을 자제할 수 있습니까?20

정말 훌륭합니다! 도나 신32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1

방문 교육 메시지 :
구세주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24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금식-사랑의 실천
더블류 유진 헨스 장로65

교회 및 지역 소식68

어린이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줄리 램버트50

편지 쓰는 즐거움.....52

친구가 친구에게 : 진 알 쿡 장로.....54

함께 나누는 시간 : 의를 택하는 용기
로럴 롤핑56

어린이를 위하여 : 멜리사와 물몬경
비키 블룸58

심심 풀이61

존 테일러 캘린 릭스62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개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앨 톱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고문: 렉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존 피 그로버그,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제308권, 제28권, 제11호
등 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1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홍 무 광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1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 / 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1991 320
 Printed in Korea 11/91

더욱 훌륭한 가정 생활

리아호나 (포르투갈어)에 축하를 보냅니다.
 매달 리아호나에 실리는 기사들은 제가 더욱 훌륭한 가정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더욱 열심히 봉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이 잡지가 계속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원한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실다 마리아 데 수우자 주벤티노
 상 베르날도 제3와드
 브라질 상 베르날도 스테이크

간증을 강화시켜 줘

저는 데 스테른(독일어)을 즐겨 읽습니다. 저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는 이 잡지를 저는 매 달 몹시 기다립니다. 저는 특히 대관장단 메시지를 즐겨 읽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노고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신권과 선교 사업에 관하여 더 많은 기사를 읽고 싶습니다.

칼·베르너 바르토쉬
 누렘베르크 와드
 독일 뮌히치 스테이크

신앙을 복돋아 줘

필리핀에서 간행되는 교회 잡지 탐블리 에 시대에 맞고 신앙을 복돋아 주는 기사들이 실리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가족과 이웃, 특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훌륭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이 잡지를 읽을 때마다 제 짐이 가벼워지고 저의 신앙이 강해지며,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 살 짜리 제 아들은 어린이 란을 무척 좋아합니다. 아들과 함께 어린이 란을 읽을 때면 제 아들은 좋아서 어쩔줄 몰라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 잡지를 읽음으로써 더욱 가까이 결속되고 세상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리벨 엠 스망파오
 상 페드로 와드
 라스 피나스 스테이크
 필리핀

몹시 기다려짐

르 에뜨왈(불어)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이 잡지를 읽으면서 이 잡지에 실린 기사들로 부터 매달 영혼에 감명을 받고 신앙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저는 르 에뜨왈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도우시는지를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통토타에 있는 조그만 우리 와드 회원들은 르 에뜨왈이 오는 날을 몹시 기다리고 있으며 그날은 특권을 받는 날입니다. 잡지를 받은 뒤에 맞이하는 주일에는 와드 회원들이 잡지에서 읽은 기사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어떤 기사가 어떻게 그들에게 감명을 주고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잡지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교회 회원에 대하여 배우면서 수 백만의 말일성도 가족이 단합하게 됩니다. 그들의 경험과 신앙을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방법으로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보람있는 지역 사회 일에 참여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범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에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님의 영을 동반할 수 있는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바나 르 피로네
 통토타
 뉴 칼레토니아

편집자 노트 :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편지와 기사 및 이야기 등을 기다립니다. 성명과 주소, 와드 / 지부 및 스테이크 / 지방부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신 편지를 참으로 기쁘게 받아 보았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사를 보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내실 곳 :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벗 담당자 앞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자 기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과 동정심으로 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이러한 마음을 지녀야 하며, 전 세계가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도 그것을 가르치셨으며,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훌륭하게 그것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어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자신에게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가져다 준 악하고, 가증스러운 무리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 : 34)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것처럼 관대하게 용서할 것이 요구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에게서 각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의 손길을 뻗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계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있던 나의 제자들이 서로 대적하여 기회를 노리며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심한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시어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구세주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 : 34)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서
 남을 증오하는 독소를
 키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

“너희는 마음속으로 이같이 말해야 하니, 나와 그대
 사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 그대 행위에 따라 그대에게
 갚으시게 하자 하라.”(교리와 성약 64 : 8~11)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 및 이와 동등한 원리인
 회개를 생활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가정에서 사소한 불화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이웃에서도 대수롭지
 않은 의견 차이가 골이 깊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을 초래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용서하고 타협점을 찾기를 거부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함께 앉아서 서로
 조용한 말로 대화를 나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데도, 사람들은 원한을 키우고
 보복할 궁리를 하는 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교회가 조직된 첫 해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여러
 차례 체포되어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꾸며낸 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을 때에 주님은 계시를 통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송사하는 자는 율법으로 저주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24 : 17)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앙심을 풀지 않고
 적개심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같이 저주가
 내려진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설혹 복수심을
 만족시킨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표정에서
 평온한 모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원통한 마음을 풀어버림

프랑스 작가인 기 드 모파상의 작품 가운데

오치퐁이라는 한 농부가 장날에 마을에 가서 겪은 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 공터를 지나가던 오치퐁은
 자갈 위에 끈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어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구 제조업자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전에 오치퐁과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시장에게 누군가 돈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오치퐁은 마구 제조업자의 고발로
 체포되어 시장 앞에 끌려 갔습니다. 그는 시장에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가 주운 끈을 보여 주었으나, 아무도 그를
 믿으려 하지 않고 비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이 문제의 지갑이 발견되어 오치퐁은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거짓 기소로 인해 받은 모욕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된 그는 그 일을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치퐁은 용서하고 잊으려 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농사 일도 게을리
 하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며, 결국은 슬픔에 억눌려 깊은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고통 속에서도 오치퐁은 “끈,
 끈”하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기 드 모파상 작품집, 로스린, 뉴욕 : 블랙스 리더
 서비스, 34~38쪽)

등장 인물이나 상황만 다를 뿐이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서로 용서하고 잇는 것보다
 더 필요한 미덕이 있겠습니까? 이런 미덕을 연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부당하게 고통받은 것에 대해 분한 마음을 품고,
 복수하려는 일념으로 평생을 살아가며, 복수할 계획을
 세우느라 자신의 능력을 소진해 버리는 데 우리의 힘과
 지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의가 짙은
 곳에는 평화가 없으며, 복수할 그 날을 위해 사는 삶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악하고 천한”(갈라디아서 4:9) 것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복수를 꾀하며 일생을 소모하려는 성향보다 더 악하고 천한 것이 있겠습니까?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세상 사람이 말일성도들을 매우 비판하던 시기에 교회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늘 악의에 찬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며, 심지어 그 사회의 평론가들도 거침없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였으며 풍자 만화의 주제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이야기라도 꾸며 내도록 하고, 어떤 글이라도 쓰게 하십시오. 그에 대한 심판은 그들 스스로 받게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339쪽) 그리고 이와 같이 용서하며 잊어버리는 마음으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위대하고도 적극적인 힘을 발휘하여 교회를 인도하였으며 결국 새로운 성장과 눈부신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대관장님이 임종하시자 그때까지 그분을 비방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찬양하는 글을 썼습니다.

저와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부부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둘 사이에는 서로 증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한때는 진실로 사랑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헐뜯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범하기 쉬운 실수를 용서하고 참고 있으려 하는 대신 서로 비판하게 되어 결국은 서로에 대한 사랑까지 식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으며, 남은 것은 고독감과 비난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조금씩이나마 회개하고 용서하는 생활을 했더라면 그들은 아직도 지난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었던 동반자 관계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용서를 통한 화평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으로 남을 증오하는 독소를 키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 곧 회개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단시일 내에 간단히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진지하게 구하고 그 마음을 계속 가꾸어 나간다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해 준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 다니며 괴롭힌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화해를 하기 위해 이미 할 일을 했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화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화평은 곧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태복음 6:14~15)

탕자

저는 문학 작품 중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만큼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은 없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는 회개하는 아들과 용서하는 아버지에게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들은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박차고 나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나자, 그는 굶주리게 되었으며, 친구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에 스스로 돌아켜”(누가복음 15:17) 부친에게로 돌아옵니다. 부친은 멀리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누가복음 15:20)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이야기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모두 이 이야기를 되풀이해 읽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누가복음 15: 20)

이 이야기는 모든 가정을 깨우치며, 온 인류를 깨우치고도 남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비로우신 용서를 받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할 방탕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신 구속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십니다. 넓은 도량으로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요구하신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여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와 나의 분노와 나의 노여움으로 너희를 치지 않게 하고 너희 고난이 극심하지 않게 하라.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너희는 건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고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교리와 성약 19 : 15~18, 23)

이것이 바로 계명이며, 우리에게 훌륭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태복음 6 : 9, 12)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상처를 감싸 줘

링컨 대통령은 그 끔찍했던 남북 전쟁으로 야기된

비극에 관해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며... 서로 상처를 감싸줍니다.”(존 바틀렛, 명언집, 보스톤 : 리틀 브라운 출판사, 1968년, 640쪽)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상처를 감싸주도록 합시다. 참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깊이 뿌리 내린 불만이나, 또는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앙갚음하겠다는 생각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복수심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완전과 평화의 끈인 외투와 같은 사랑의 끈으로 몸을 감싼다면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88 : 125 참조)

“잘못을 범하는 것은 인간이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알렉산더 포프, 비평론, 2 : 1711) 지나간 상처의 이쁨을 간직하고자서는 마음의 화평을 얻을 수 없습니다. 화평은 회개하고 용서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 : 9)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화평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 주는 용서하는 마음이 복음의 정수이다.
2. 가정에서나 이웃 사이에, 또한 사업상의 교제 및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구세주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3.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4. 우리들을 갈라놓은 상처들을 서로 감싸 주고, 우리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화평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로지를 축복해 줘

마리 루 하워드

나는 여러해 전 부터 그
요양원의 성찬식에 참석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그곳에서 열린
워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것이다.

전주곡이 흐르는 동안 나는 그
방을 둘러보았다. 어떤 환자들은 나이
때문에 쇠약해져서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또 어떤 환자들은
선천적인 불구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들의 전생애는 힘든 몸부림이었다.
겨우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끈으로
묶여져 고정되어 있는 것이 그들이
성취한 모든 것이었다.

나의 왼쪽에는 반원형 대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낮익은 휠체어가
있었다.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이 어린 숙녀를 보았다. 술이 많고
끈은 머리카락이 턱과 같은 길이로
잘려져서 그녀의 야윈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턱은 뒤틀리고
느슨해져 있었고, 혀는 입 밖으로
나와 있었다. 몸의 다른 부분들도
마치 관절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구부러지려는 것처럼 뒤틀려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휠체어에 끈으로
고정되어진 상태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모임을 기다렸던 것같이
보였다.

우리는 개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였으며 나는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성찬대를 지켜보았다. 한 제사는
자신있고 경험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른 제사는 안절부절하는
것 같았다. 다음에는 성찬대로 나가서
성찬 전달기를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집사들이 나의
주의를 끌었다.

그들 중 한 명이 휠체어에 앉아
있던 그녀에게로 갔다. 팔걸이에 얹힌
그녀의 팔은 뒤틀려 있었으며 그녀의
마비된 어깨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집사가 다가가자 그녀의 뒤틀려 있는
이빨없는 입이 힘없이 떨어져
벌어졌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빵조각을 집어 그녀의 혀바닥 위에
놓았다.

고조된 목소리가 방을 가로질러
들려왔다. “당신은 저 훌륭한 소년이
로지에게 성찬 빵을 주는 것을
보았어요?”

성찬 물을 축복하는 기도를 끝내는

아멘을 하면서 나는 “내가 일어나서
그녀가 그 작은 컵의 물을 마시도록
도와 줄까?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생각했다.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그 집사는 다시 로지의 가없는
입안에다 상냥하게 성찬물을
부어 줌으로써 그녀를 축복해
주었다.

나는 내가 그 일을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앉아 있었다. 다음에 그
집사가 내 앞에 멈춰 섰을 때 나는
그 집사가 손을 떨며 자신이 과연
올바로 행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눈빛으로 묻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보았던 것은 그의 용기와
동정심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거리 주었으며 미소로써 그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그는 그때 자신이 할 일을 미리
들었거나 그것에 대해 준비된
상태였을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을까? 어쨌든 그것은 열두 살
소년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어린 신권 소유자가 침착하게 그의
정원회 임무를 완수하는 것에 대해
속으로 감사하였다. *



복음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된

아이티 성도들



엘리자베스와 제드 반덴베르그

아이티 섬의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한다.

프리츠너 조셉은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이티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그는
1979년에 침례 받았으며 이 조그만 카리브
연안 국가의 첫번째 회원 중 한 사람이었다.
이 년 후에 그는 푸에르토리코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1988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대학
과정을 마쳤으며 미국에서 취업 제의가
들어왔으나 아이티에서 교회 교육 기구 지역
책임자직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가 맡은 지역은 아이티 전역인데,
아이티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함께 히스파니올라섬을
양분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다수는 프랑스 이주민들이
데려왔던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힘준한 땅에서 사탕수수과 바나나 같은 농작물을
수확하여 생활한다. 아이티는 토착민인 아라와크
인디안의 말로, ‘산이 많은 나라’를 뜻한다. 아이티에
있던 많은 나무들이 벌목되었고, 그 땅에 사는 600만명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생활할 공간도 별로 없다.

아이티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프리츠너는 말한다. 한 예로 아이티는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티의 사회적인

추세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무시하며
아이티 전통 종교는 교회의 가르침과
대립된다.

그러나 아이티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있으며, 이것이 “미래를 위한
우리의 희망”이라고 프리츠너는 말한다.

아이티에서 ‘희망’은 매우 중요하다.
프리츠너 조셉과 같은 교회 회원들은 동료
말일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희망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때때로
그들의 개인적인 야심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아이티 성도들은 인도적인
조직들이 제공하는 생명의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이나 의료 및 학교 등을 가지고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삶의 진정한 변화를 복음을 통해 얻게 되었다.

현재 아이티에는 포트 오 프린스의 불규칙하게 뻗어
있는 도시와 교외 및 시골의 조그만 마을까지 18개의
지부가 있으며, 회원 수는 3,500명 가까이 된다. 그리고
1990년 1월 아이티 포트 오 프린스 지방부가 프린스 북
지방부로 나뉘어졌다. 현재 아이티에는 대략 140명의
선교사가 봉사하고 있는데, 그 중 26명은 그 지역
출신이다. 그들은 공식어인 프랑스어와 아프리카어,





왼쪽 : 게르다 사논은 상호부조회가 “일상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티 여성들을 돕는다. 교회 자매들은 가족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오른쪽 : 위쪽 오른쪽에 있는 아이티 팔올린은 델마스 지부의 초등학교 회장이며 또한 수업료를 낼 수 없는 아이들에게 보조금과 음식을 주는 이 사설 유치원의 교사이기도 하다.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가 섞여진 아이티 혼합어로 의사 소통을 훌륭하게 해낸다.

“가난한 사람도 복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빵을 필요로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복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세상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 순위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직 그렇게 할 때만 진실로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라고 프리츠너 형제는 말한다.

아이티의 말일성도 지도자들은 복음이 초래한 변화와 아이티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든 그 밖의 노력을 통해 이룩된 변화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아이티 포트 오 프린스 북 지방부의 신임 지방부장인 자클루드 두마 형제는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의 예언자들처럼 하기를 명하십니다. 그분들은 흔히 자신의 과제를 완수할 확실한 방법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예언자들은 노력했으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아이티 성도들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직업 훈련을 받음으로써 큰 도움을 받는다. 선교사들 역시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티인들에게 경전 읽는 것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 아이티 포트 오 프린스 선교부장의 제2보좌로 봉사하는 프리츠너 조셉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도 참다운 변화를 가져 오지는 못합니다. 공공 시설과 기부금들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들은 결코 영원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며 각 개인의 영혼을 감동시켜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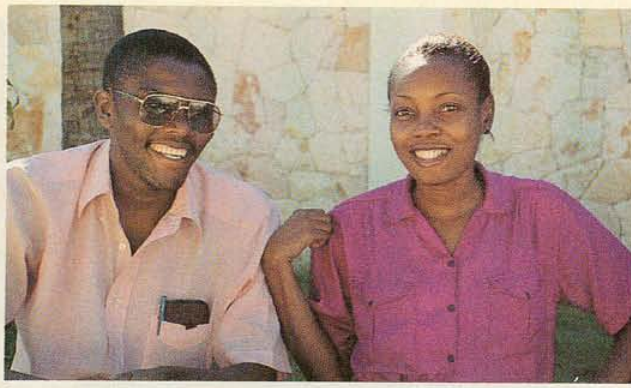
포트 오 프린스 센트럴 지부의 23살난 지부장인 알렉스

라저 같은 회원은 그러한 변화의 효력에 대한 산 증거이다. “목적없이 사는 것이 어떤지 아십니까?”라고 그는 묻는다. “침례받기 전의 제 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입한 이래로 알렉스는 모국인 아이티 선교부에서 봉사하였으며, 지금은 지부 회원들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바친다. “제 인생은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에서 질서와 목적을 지닌 상태로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것을 기대하며 전에는 결코 생각해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28살로 남 지방부장인 에디 부르도는 이전에 아이티의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지낸 적이 있는데 그의 일은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것과 그들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다. “어떤 회원들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어떤 회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원들은 참된 신앙을 보여 주며 그들이 무엇을 요구받든지 즐겁게 수행합니다. 흔히 그들은 옷을 잘 차려 입고 웃음을 띤 상태로 교회에 나오지만 집에 돌아가면 음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학교에 다니도록 해주며 무료로 병원 치료를 받고 기타 다른 도움들을 주는 교회들이 있는 곳에서 말일성도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십일조를 바친다거나 계명을 지킨다거나 또는 어떤 것을 받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 주었다는 간증을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안겨 준다.

가족이 됨

희망은 또 ‘전통적’인 가족이 그리 흔하지 않은 사회에서 회원들의 생활에 일어나는 변화속에서도 생긴다. 이 지역은 난혼이 아주 흔한 일이며, 여러 명의 자녀를



왼쪽 : 신학 연구원 학생인 오리올 아투스과 안젤레 이만드 스투게스. 아투스 지방부장단의 보좌이며, 스투게스 자매는 페티온빌 지부의 회원이다.

오른쪽 : 레이놀즈와 지슬란 산 루이는 복음이 그들의 가족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서 인봉되기를 바란다.

부양하고 있는 미혼모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17살 난 초등협회 역원인 크리스틴 주스트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아이티의 미래의 개척자로 본다. “초등협회 어린이들이 만일 교회 안에서 이룩되는 훌륭한 가족 생활을 배우고 볼 수 있다면 이 다음에 매우 강하게 결속된 가족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24살 된 상호부조회 교사인 낸시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대부분의 아이티 사람들과는 달라요. 저는 전통적인 가정을 갖기위해 준비하며 살아왔어요.” 그녀는 25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독실한 카톨릭 교도인 양친에게서 이러한 생각을 배웠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라고 그녀는 덧붙인다.

“저는 가족이 무엇인지 정말 몰랐어요.” 교회에 가입한 후 지금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한 젊은이의 말이다. “저는 열 세살 이후부터 난혼 관계를 가져 왔으며 복음이 제 생활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때까지는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젊은이와 다른 성도들이 쌓고 있는 건강한 가정 생활을 위한 기초는 아이티 국민성의 하나인 사랑과 온정, 겸손함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특별히 아이티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희생의 모범을 몸소 보여준다. 이들은 가족들을 위해 때때로 정서적, 경제적으로 희생한다. 아이티의 시골에서 개종한 19살 된 자 피에르 에른소는 그의 어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나나와 기름을 팔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7명의 가족을 부양하였으며, 자녀들을 학교에까지 보냈다. 아이티의 학교는 각자가 비용을 대는 사립 기관이다.

이와 같은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일체감과 목적과 사랑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교회에 들어온 후부터 우리는 아주 단합되었어요.” 세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둔 윌헬미나 프리스 올리비에의 말이다. 그녀는 가족 기도와 경전 읽기가 “우리들의 가정에 아주 많은 사랑을 가져다 주었어요.”라고 말한다. 그들은 때때로 모든 이웃 사람들을 모아 음식을 먹고 게임을 하며

선교사들과 만나는 기회를 가지는, 그들이 “슈퍼 가정의 밤”이라고 부르는 모임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의 밤을 통해 교회를 알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패스츄리 제과사로 일하면서 자녀들을 6학년까지 학교에 보낸 윌헬미나의 말이다.

레이놀즈와 지슬란 산 루이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결혼했으며 남편은 의료기관 대표로 그리고 아내는 소아과 의사로 둘 다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티온빌 지부의 회원인 레이놀즈는 이렇게 말한다. “1980년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영원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며 언젠가는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을 것입니다.”

프리츠너 조셉은 아이티의 젊은이들이 그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젊은이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는 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회원들의 70퍼센트가 젊은이들이며 그들은 강한 가족과 강한 교회와 강한 나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많은 젊은 회원들이 있는 아이티에서는 독신 회원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교회에 오시면 높은 표준을 가진 독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지부 활동을 하다 아내 에블린을 만난 조셉 세라의 말이다. 귀환 선교사인 켈린 바부는 “여러분은 교회에서 결코 혼자라는 느낌을 갖지 않으실 겁니다. 회원들은 가족과 같으니까요.”라고 말한다.

부두교를 극복함

복음은 회원들이 경제적인 도전과 도덕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이티에서 번성하는 전통적 종교인 부두교에 대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아이티의 부두교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상징 및 형상들과 접신, 저주, 피의 희생을 포함하는 그들 자신의 예배 의식이 결합된 것이다.





왼쪽 : 델마스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자
밌티스태도 역시 유치원
교사로 일한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자존심을 가르쳐
주고 싶어하며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사랑의 모범을
보여 준다.

오른쪽 : 포트 오 프린스
센트럴 지부의 지부장인
알렉스 라저는 교회
출판물을 아이티 혼합어로
번역한다.



어떤 회원들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부두교와 전통적인 기독교를 믿었다. 조셉 형제는 “그들이 과거에는 양쪽을 다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과거의 믿음을 모두 포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회원들의 복음에 대한 간증이 커지면서 그러한 유혹은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어떤 회원들은 부두교를 거부함으로써 가족의 유대와 우정과 심지어는 직장까지 버려야 한다. 50퍼센트 이상의 실업률을 가진 나라에서 이것은 대단한 희생이다.

북 지방부장단의 제1보좌인 오리올 아투스 형제는 부두교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두 번의 취업 기회와 승진을 포기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곳에서 성공하려면 부두교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 번 저의 고용주나 또는 고용주가 될 사람들은 저에게 교회와 부두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언제나 직장을 떠나거나 승진을 포기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보수를 덜 받고 일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원들은 그러한 전통을 버리기 위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부두교도들이 재정적으로 부유한 모습을 보는 가난한 회원은 “그들에게 속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는 힘든 시간을 갖게 된”다고 최근에 개종한 작가이자 발명가인 윌프리드 엘리는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부두교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지만 참된 진리를 만나면 나약해집니다. 저는 그러한 적대적인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권의 힘을 사용해 왔습니다. 신권은 제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압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

에디 부르도는 1983년에 침례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자기 나라(최근에 나누어지기 전임)의 지방부장이 되리라고는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처음에는 강한 확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아론 신권을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의 말이다.

그때 그는 교회 역사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고 교회에 더욱 헌신적이 되었다. “가정과 나라와 심지어는 가족까지 등지고 미지의 황무지로 떠났던 초기 개척자들의 기사를 읽었을 때, 저는 ‘그들이 참되지 않은 것을 위해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경을 읽으면서 그의 확신은 더욱 커졌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자 결심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졌던 많은 축복들—귀환 선교사인 그의 아내와 같은—을 회상한다. 에디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미리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아이티에 있는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새로운 출발 및 또 다른 시작 이라는 말에 익숙하다. “제 인생은 교회를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라고 조셉 형제는 말한다. “정직하게 말해서 저는 교회에 들어올 당시 어머니의 죽음과 그 일년 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죽음을 포함하여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 순위에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고 나자 곧 선교 사업과 교육 및 일이라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 이곳에 머물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그 나라의 정치와 어려운 문제에 똑같이 잘 적용되는 말인 ‘산넘어 산’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을 본다. 그러나 아이티의 말일성도들은 그 산을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더 많은 희망을 발견한다. * 엘리자베스와 제드 반덴베르그는 솔트레이크 홀라데이 스테이크의 홀라데이 제1와드에 살고 있다.

한 사람으로 교회가 시작됨



“저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아이티, 포트 오 프린스의 소인이 찍혀 플로리다 포트 로더대일 선교부로 보내온 편지의 내용이다. 그것은 아이티의 탁월한 사업가이며 진리를 찾던 그의 노력이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른 알렉산드레 무라에게서 온 것이었다. 리차드 엘 밀레트 선교부장은 그 편지를 읽고 프랑스어로 된 것과 영어로 된 몰몬경 두 권을 보냈다.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유대계 아랍인의 혈통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알렉산드레는 어린 아기일 때 아이티로 왔으며 그곳에서 청년이 될 때까지 살았다. 그후 가족이 베들레헴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2차 대전 중에는 영국군과 함께 레바논에 있었으며 그후 아내와 자녀와 함께 아이티로 돌아왔다. 알렉산드레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진리를 구하였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수년 동안 기도하였다. 심지어는 응답을 받기 위해 포트 오 프린스에 있는 그의 가게 이층에서도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1977년의 어느 날 알렉산드레는 기도한 후 가게로 돌아와서는 그의 아내에게 “어디 좀 다녀와야 하겠소.”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사촌이 운영하는 가게로 갔는데, 그곳에서 사촌의 아내가 마이애미에서 말일성도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몰몬경을 읽고 있었다. 몰몬경을 빌려려 했지만 빌려 주지 않자, 그는 그녀에게 요셉 스미스의 간증이 든 소책자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것을 즉시 다 읽었으며 그 다음에 그 책을 얻기 위해 플로리다 포트 로더대일 선교부로 편지를 썼던 것이다. 그 책이 도착하자 그는 밤을 새워 불어판 몰몬경을 읽었으며, 그리고 나서 자신이 추구하던 것을 찾았음을 알았다. 1977년 7월에 알렉산드레는 포트 로더대일로 날아갔으며 그곳에서 58세의 나이로 침례받고 제사에 성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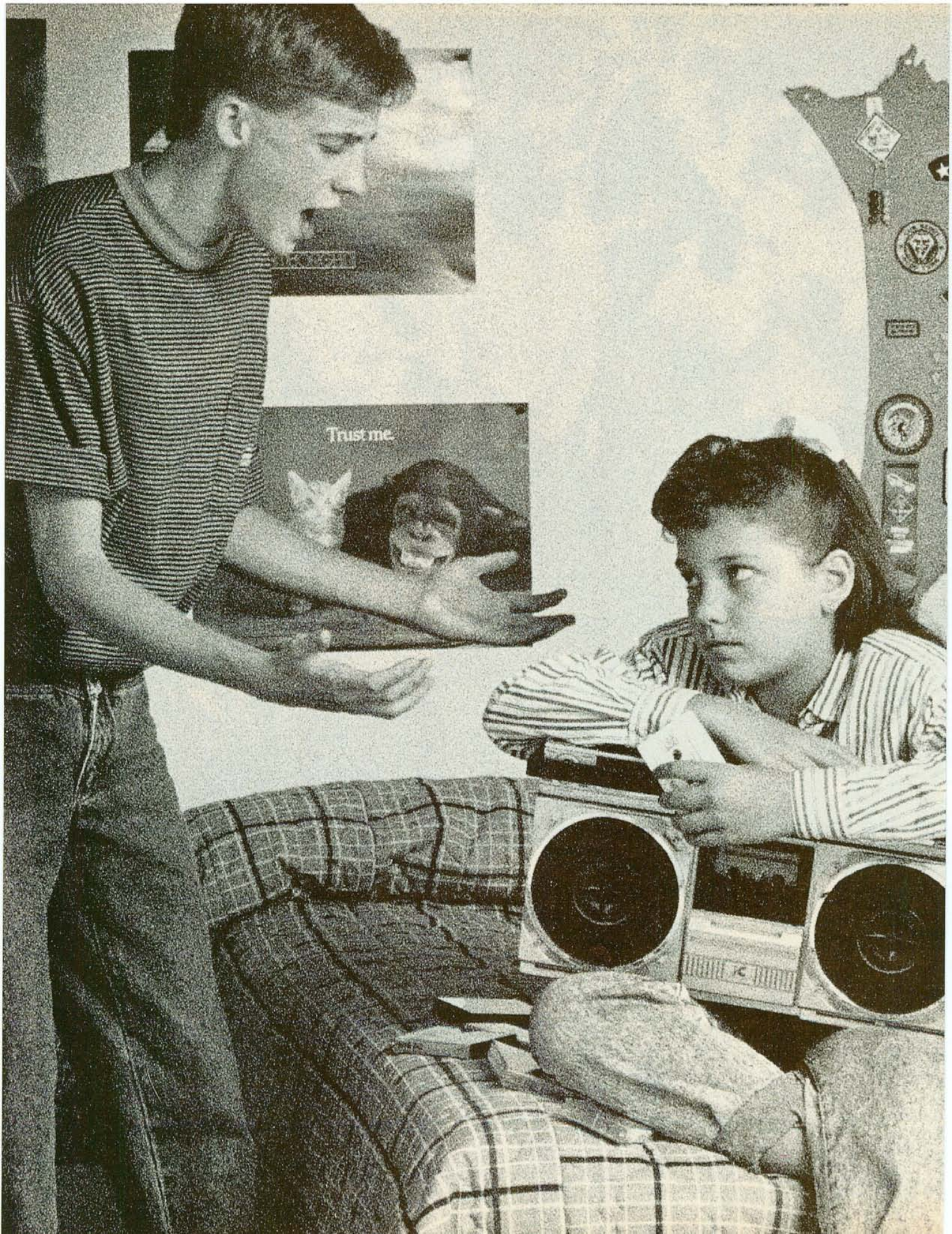
그것이 아이티에서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이었다. 무라 형제는 종교적인 견해들과 성실함으로 널리 존경을 받았으며, 또한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1978년 7월까지의 그 나라의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다. 1978년 6월 8일에 밀레트 선교부장은 플로리다에서 전화를 걸어 알렉산드레에게 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자 회원은 이제 신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이 소식은 아이티 인구의 98퍼센트에 달하는 흑인들에게 아주 중대한 것이었다. 무라 형제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7월 2일에 밀레트 선교부장과 그의 보좌들은 포트 오 프린스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인 하트 마리의 강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침례식에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22명의 아이티인들이 교회 회원이 되었다. 1978년 9월에 제이 프레데릭 템펠만 형제가 캐나다 대사의 수석 비서관으로 일하기 위해 아내와 네 자녀를 데리고 아이티에 도착하였다. 무라 형제는 템펠만 형제와 함께 아이티에 교회의 첫번째 지부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1980년 10월 포트 오 프린스에서 마침내 그 일이 성취되었다.

그 때까지 아이티에서는 플로리다 포트 로더대일 선교부에서 온 네 명의 복음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었다. 이 나라는 그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해 있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가 복음 전파를 위해 아이티를 헌납하던 1983년 4월 17일까지 플로리다 선교부에 속해 있었다. 거의 백 명이나 되는 아이티인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거나 현재 봉사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청소년들도 곧 선교사가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

아랫줄 왼쪽의 알렉산드레 무라는 자신이 침례받은 지 일년 후에 그와 복음을 나누었던 23 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것은 아이티에서의 첫번째 침례식이었다.





어떻게 노여움을 자제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화가 나는 것을 자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사람들이 종종 저를 굉장히 화나게 만들면 자제력을 잃고 맙니다.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화를 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음 대답은 교회 정체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답

이 세상은 짜증스런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 모든 사람들이 무수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형제님은 그 모든 사람들 중 0.01퍼센트 정도의 사람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형제님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형제님이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을 보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노여움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형제님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자제한다면 형제님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형제님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들이 형제님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제님은 자유의지를 속박당하게 됩니다.

쉽게 흥분하며 노여움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니트로그리세린이 든 병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것을 두렵게 느끼며 가능한 피하려 하고 피할 수 없을 때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걸어다닙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 우정이 생길 수는 없으며 편안하고 신뢰하는 가족 관계도 형성하지 못합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종종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나 폭력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감정상이나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그와 반대로 행한다면 누릴 수 있을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을 막습니다.

언제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할까요? 경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악함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 노여워하신다고 말해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번도 노여움을 자제하지 못하신 경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약물을 팔거나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과 같은 일들은 노여움을 불러 일으키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을 할 때마다 노여워하는 것은 정욕이나 탐욕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영적으로 발전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이 노여움을

자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여기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1.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무시하십시오. 화낼 만큼 중요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이 형제님에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몸짓을 하며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2. 미리 준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또는 운전하기 전이나 학교에 가기 전에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항상 형제님을 화나게 하는 상황과 그것에 조용히 대응하는 자신을 보는 상황을 상상하십시오.

3. 자신을 돌아봅니다. 형제님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며 어쩌면 어리석고 짜증스러운 일들을 할지도 모릅니다. 형제님의 실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들의 잘못을 인내하고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4. 유머 감각을 기릅니다. 자신을 웃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은 실수를 어리석은 실수 이상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실제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무례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할 때조차도 유머는 가장 훌륭한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

5. 무엇보다 성신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사랑을 구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태도는 쉬이 죄 짓는 상태에서 우리를 지키도록 도와 줍니다. 매일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경전을

읽고 영을 지니기 위해 해야 한다고 배웠던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분노"라고 불리는 노여움의 종류에 대해 토론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에서 또는 우리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해진 중대한 잘못에서 비롯되는 심각한 계속되는 종류의 분노도 있습니다. 만일 형제님이 그런 분노를 느낀다면 부모님이나 감독님 같은 신뢰할 만한 어른의 도움을 구하도록 강력히 권합니다.

청소년들의 대답

저는 형제님의 문제를 이해합니다. 분노는 묘한 것이며 우리가 우리 감정 때문에 때때로 괴로움을 겪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극복하고 발전시켜야 할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게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십시오. 열까지 세십시오. 그리고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그런 감정을 야기시킨 상황에서 떠나십시오. (2) 그 분노를 규명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어떤 이유로 그것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가? (3)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4)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형제님에게서 분노의 감정을 물리쳐 주시고 대신 평화와 용서로 채워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더서 12장 27절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겸손하다면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토마스 에프 스미스 장로, 19세 앨라배마주 버밍햄

사람들은 모두 한두 번 이상씩 분노를 겪게 됩니다. 그 차이는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자제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님이 자제력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형제님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제게 도움이 되었던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지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를 알았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제 자신을 통제하도록 노력하고 자제력을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커티스 하이드, 19세
네바다주 러브록

사람들은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화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자제력을 잃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어리석은 행동은 분별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님을 노엽게 하려 들것입니다. 그들을 실망하게 하고 홀륭하게 대응하십시오. 분노를 폭발시키기 전에 다시 평정을 되찾기 위해 하나에서 열까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거꾸로 세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경솔하게 행동하지는 마십시오. 조만간 형제님은 자신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인내에 관해 많이 배울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언 15 : 1)



토니아 스톡, 20세
유타주 샌디

화가 날 때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대신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님이 혹시 과잉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은 그것을 좋게 느꼈습니까? 또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형제님의 기분이 상하셨습니까?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화를 내게 만든 사람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비키 엠 부루거, 14세 뉴욕주 로체스터

제 성격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아주 바보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쉽게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극복했던 방법은 물론경을 읽고 제 느낌을 종이에다 써 내려가며 그런 성격을 바꾸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한 주 후에 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주 화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존 오 레이어 장로, 19세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사람들은 누구나 때때로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합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형제님을 화나게 한다면 조용히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잘못된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차드 피셔, 14세 콜로라도 주, 덴버

저는 똑같은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문제를 통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터뜨렸지만 후에는 사과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형제님이 분노를 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형제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상하게 하는지에

대해 기도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미 부스, 14세
앨라바마주, 제네바

저 또한 아주 나쁜 성격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주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때때로 너무 화가 났을 때는 제게 손 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그것이 항상 제 가족에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자극하는 원인이 되는 비타민 결핍증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사랑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으며 심지어는 자신을 저버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의 남동생이 저를 너무 화나게 해서 저는 동생을 발로 걷어 차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동생이 저에게 잘해 주는 대신에 제가 동생에게 잘해주게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덜 짜증스럽게 굴었으며 저도 그런 것에 대해 덜 예민해졌습니다.

실라 웹, 17세
캘리포니아주,
씨니 베일

그런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화를 내었던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나 좋은 친구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저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싶습니다. 이때 저는 혼자서 제가 왜 그토록 화를 내었는지 스스로 물어 보고 깊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은 항상 제게 도움이 되었으며 부드러운

마음과 잔잔한 영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분노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잠시 흐려졌지만 더욱 명백하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조언을 해주며 가장 사려깊게 귀기울이며 위로해 주는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레티샤 도나후,
20세
아이다호주,
렉스버그

저는 화가 나는 일에 대해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대처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일 년 전에 저는 성질을 이기지 못해 손으로 벽을 치다가 손을 부러뜨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두 달 후에 저는 또 다른 벽을 치다가 똑같은 손을 다시 부러뜨렸습니다. 그런 미숙함 때문에 저는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 사람들에게 화난 채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물건을 치거나 던지지 마십시오. 마음을 진정시키고 형제님의 문제 때문에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양을 이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안의 상을 둘러 앉으실 때 느끼셨던 것 같은 의로운 분노를 겪을 기회가 형제님에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제님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을 보고 형제님을 판단할 것입니다. 누가 화 잘내는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통제는 주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의 진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맥스 부허, 16세
워싱턴주, 벨링햄

저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세운 일련의 간단한 규칙들을 따름으로써 제 성격을 더욱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긴장을 푸십시오. 상황을 더 심각한 상태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생활에 즐거움을 가지십시오.

두번째로는 화가 날 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십시오. 스스로 화를 진정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세번째는 일어났던 일과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평정을 잃을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까? 네째로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 다른 사람에 관해 생각하십시오. 형제님에게는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것일지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적극적으로 되어 자신을 믿으십시오. 형제님은 분노를 자제하실 수 있습니다.

사나 윌슨, 16세
캘리포니아주,
파운틴 밸리

여러분이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 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을 1992년 1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U. S. A.

편지 안에 여러분의 성명, 나이, 도시 및 와드와 스테이크 명을 꼭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국어로 쓴다면 그것은 번역되어 실릴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보내 주십시오. 돌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편지가 아주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것이라면 여러분은 익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편지가 다 실리지는 않습니다.

질문: 저는 경전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더 즐겁게 대할 수 있는 방법과 제 인생에서 그것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구세주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모든 사람에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정력과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지침이 되는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가정은 자녀들이 훌륭하게 수업을 하도록 노력과 자원을 쏟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주의깊게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전 공부가 생활에서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경전 공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을 보는 데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시간과 정력과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이것에 입각하여 볼 때 자신의 우선 순위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구세주를 중심으로 함

말일성도 여성의 독특한 상황에 꼭 맞는 한 가지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유타주 오렘에서 온 시드니 스미스 레이놀즈 자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문자 그대로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가? 나는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일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나는 늘 주님과 다른 사람들 또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나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화가: 아담 윌킨슨의 영인화. 피에르 파세, 프랑스, 19세기

데에 더욱 중점을 둔다면 어떻게 나의 생활이 달라지겠는가?

일상 생활에서 구세주를 최우선으로 함

덴마크에 사는 메트 한센 로 자매는 식자 조판 일을 자영하는 것으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일이 뜸해졌을 때 로 자매는 딸과 함께 금식하며 많은 일거리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많은 원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한센 자매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잘 작동을 하지 않았으며 로 자매가 원고를 집어 들었을 때 손이 더러워진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를 읽어 보아야 한다는 충동을 받았습니다. 덴마크 전역에 있는 대학에서 사용하게 될 교재인 이 책의 두번째 쪽부터 마지막 쪽까지에서 그녀는 “지금까지 읽어 본 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모독하는 책”임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내부에서 한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식자하면 안된다. 메트. 만약 네가 한다면 너는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다.” 또 다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식자를 하든 안 하든 이 책은 인쇄될 것이다. 네가 이 일을 하면 너는 다음 달 청구서에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며 인쇄 업자에게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원고를 돌려 주었습니다. 며칠 후 자매는 여섯 달 동안 바쁘게 일해야 할 만큼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인쇄업자는 그녀의 가장 좋은 고객이 되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구세주를 우선으로 둘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다 풍요롭고 충만한 인생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항상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세주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생활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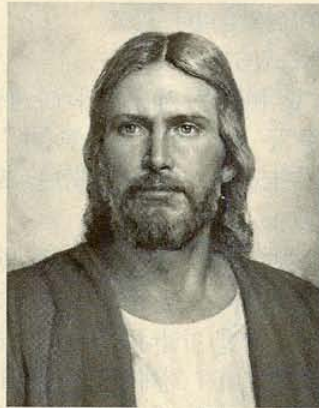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 바쁜 가족은 여러 번 실패를 한 끝에 다시 경전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가족의 어머니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경전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서로가 더욱 가까워졌고 우리가 살아온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가정에 사랑과 조화가 넘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구세주를 최우선으로 삼음으로써 받은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

팔복

구세주에게로 나아가는 길

산상 수훈의 가르침은 구세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세주를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암흑의 안개를 통하여 니파이인들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내게로 나아오라”(니파이삼서 9 : 13~14, 20, 22 참조)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는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먼저 “일어나 내게로 와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니파이삼서 11 : 14)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상의 구세주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 위대한 특권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권유는 고대 니파이 성도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께서는 구대륙에서도 가르치신 산상 수훈과 같은 설교를 통해 (마태복음 5~7장 참조) 고대 니파이 백성들과 현대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팔복으로 불리우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가 하나님임을 강력히 증거하도록 인도될 수 있습니다.

총관리 역원을 따름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주신 첫번째 원리는 그분이 택하신 종들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서 뽑아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의 종이 되게 한 이 열 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복되리다.”(니파이삼서 12 : 1)

제가 짐사였을 때인, 어느날 어머니께서 제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조이신 윌리엄 제이 그리츠로우 이세 장로님이 우리 스테이크 대회에 말씀하시러 오신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회에 늦게 도착한 탓에 연단에서 멀리 떨어진 뒷자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츠로우 장로님이 말씀하시려고

일어나셨지만, 그분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의자를 통로 연단 정면에 놓고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12살 난 소년이 통로 가운데 앉아서 그분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크리스로우 장로님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저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 그의 말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습니다.그분은 저에게 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깊은 평화와 행복을 느꼈으며, 그 순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의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총관리 역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가는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을 신뢰하고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예수께서는 구대륙에서 가르치신
산상 수훈과 같은 설교를 통해 고대 니파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있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겸손과 침례

구세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말씀하신 들찌 원리는 “참으로...
지극히 겸손하여지며 침례를 받는
자는 복이 있을찌니, 저가 불과
성신을 받으며 죄 사함을
얻겠음이라”(니파이삼서 12 :
2)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와 성찬을
취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겠다고 성약을 맺음으로써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몸이 몹시 편찮으셔서 의식을 잃고
돌아가신 줄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아름다운
호수 곁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곧 이어 스미스
대관장님은 숲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나서 스미스 대관장님은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생각되는 분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실 때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라고 스미스 대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인데
저는 그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앞에 가까이
오셔서, ... 저를 바라보시면서
엄숙한 목소리로 ‘나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다.’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한 모든 일이 마치
영화의 화면처럼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결코
할아버지께서 부끄러워 하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두 팔로 안아 주셨습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7년 3월호,
139쪽)

언젠가 우리 모두는 구세주 앞에
설 것이며, 그분을 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아마도, “네가 침례를 받을 때에 내
이름을 젊어졌지? 그래 너는 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실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구세주께서는 이 두 가지 기본
원리를 가르치신 후,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게 된다고
설명하시면서 심령을 받은 축복된
상태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데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이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니파이삼서 12 :
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라야 비로소 지극히
겸손하여지며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축복을 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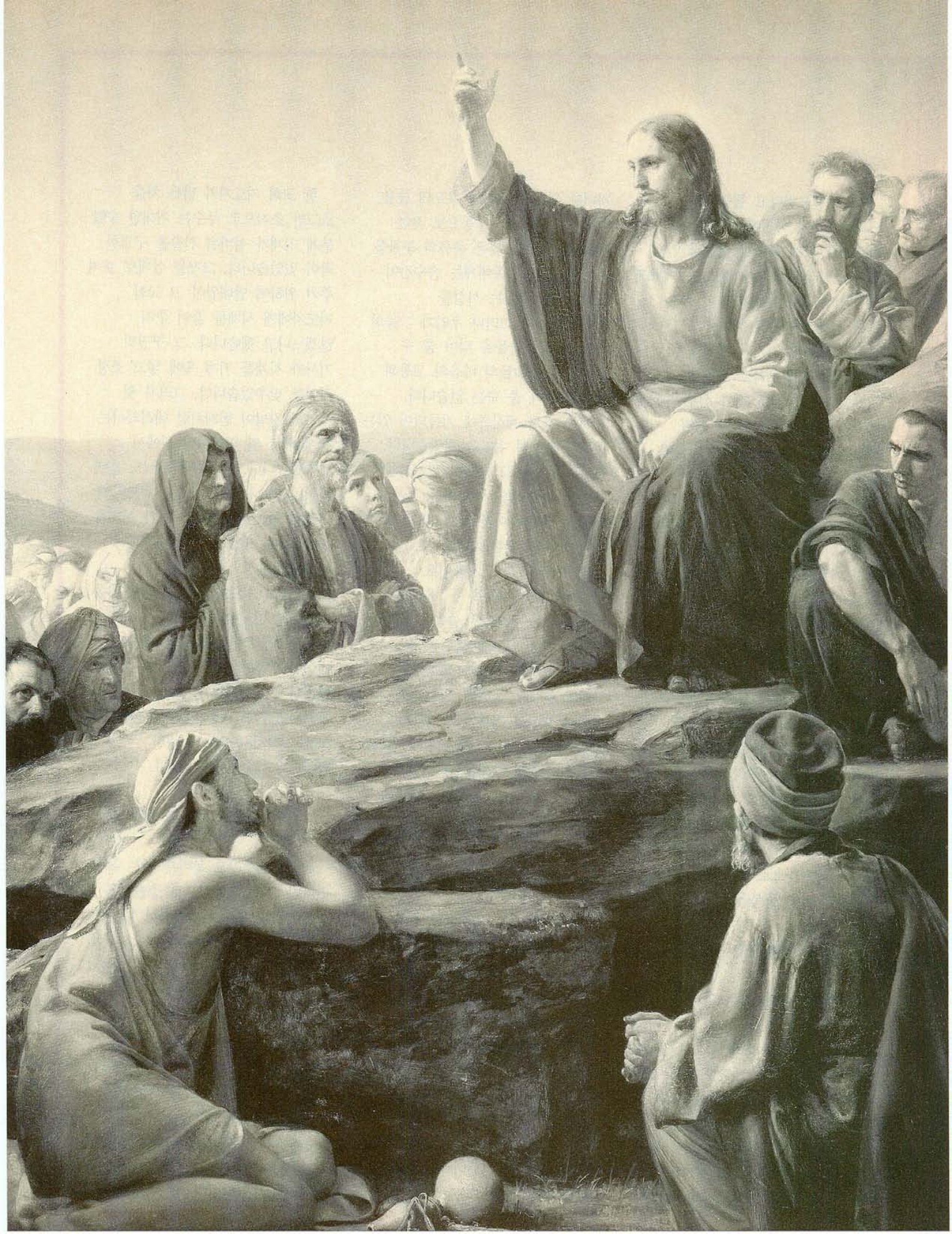
수 있습니다. (2절 참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겸손은 우리가 더 큰 능력에
의지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 출판사, 1988년
369쪽) 구세주와 그분의 예언자들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요한복음 5 :
30)라는 말씀을 훌륭하게
실천하셔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우리는
주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라고 말씀하셨으며
(설교집, 5 : 343), 또한 모세는 “...
이로써 나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도다. 이 일은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도다.”(모세서 1
: 10)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영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참으로
가난합니다.

베나민 왕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일생 동안 찬양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익한 종임을
인식할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겸손함을 느낍니다.(모사이아서 2 :
20~21 참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능력과 제가 숨쉬는 바로 그
공기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제가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친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무렵에 어린
아들이 제게 선물을 하려는데



2달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날 아침에 이들은 제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선물로 인해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쁘게 포장되어 그의 이름이 붙어 있는 많은 선물 꾸러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가 저에게 준 선물부터 열어 보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무실에서 쓰도록 향아리 곁에 조개 껍질 모양의 마카로니를 예쁘게 물들여 붙여서 만든 연필꽂이였습니다. 저에게서 받은 2달라로는 연필과 지우개를 샀습니다. 저는 제 이들의 천진함과 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제서야 제 아들은 자신이 받은 선물 꾸러미들을 열심히 뜯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선물인, 생명, 속죄, 복음, 예언자, 경전, 성전 등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선물은 마카로니를 붙인 향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차이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매우 겸손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니파이삼서 12 : 4) 저는 감독이 된 후에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죄를 고백하며 흘리는 눈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 성전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 회원 가족이 흘리는 눈물, 방황하는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부모의 눈물, 늙고 지친 육신의 고통으로 오는 눈물 등 참으로 많은 종류의 눈물을 봅니다. 저는 감독에게는 손수건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불행은 닦아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을 통하여 위안을 찾았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요한 계시록 21 : 4)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요한 계시록 1 : 8)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거두어 주시며 죄를 끝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고통과 사망과 고난, 죄, 그리고 눈물을 끝나게 해주시며, 기쁨과 생명과 평화가 시작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병 고침과 진리와 성취가 시작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슬픔의 끝이요, 위안의 시작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요”(니파이삼서 12 : 5)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민수기 12 : 3)라고 묘사되었으면서도 위대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마태복음 11 : 29)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한 교회 지도자가 낡은 차를 조그만 조각으로 부수는 거대한 수압 분쇄 기계가 설치된 건물을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 주기 위하여 안내원이 그 교회 지도자에게 시계를 풀어 주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공장의 기사가 시계를 기계 속에 넣고 조정 장치를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윗 부분의 칼날이 번개처럼 내려와서는 시계 바로 일 밀리미터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또 양 옆 칼날도 함께 튀어나왔으나 역시 시계를 건드리기 직전에 멈추었습니다. 기사가 시계를 꺼냈을 때, 시계는 굵힌 자국하나 없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는 이 실험에 매우 만족해서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방금 제가 태어난 이후 최초로 온유함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온유함이란 완벽한 통제 밑에서 나오는 위대한 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임이요.”(니파이삼서 12 : 6) 사람이 굶주리고 목말라하며,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었을 때 행복을 가져 오는 ‘의’란 어떤 것입니까?

리하이와 니파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만큼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달린”(니파이일서 8 : 10) 생명 나무를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 열매를 묘사하는 감미로운, 하얀, 먹음직스러운, 아름다운, 진귀한, 기쁜 등과 같은 단어는 그 앞에 비교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열매는

“참으로 ... 지극히 겸손하여지며
 침례를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니, 저가 불과 성신을 받으며
 죄사함을 얻겠음이라.”(니파이삼서 12: 2)

그냥 달콤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보다도 맛이 감미”로웠으며, 그 열매의 빛깔은 “내가 본 그 어느 것보다도 희”고, 그것은 “다른 어느 열매보다도 먹을만 하”고 그 열매의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도 뛰어나며” “다른 어떤 것보다 진귀하며” 또한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니파이일서 8: 11~12; 11: 8~9, 23)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려 할 때,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라고 대답했습니다.(요한복음 6: 67~68)

베드로처럼 구세주의 생명 나무와 생명수만이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옵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감을 받을 것이요”(니파이삼서 12: 7) 공홀히 여기는 마음은 용서에 절대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또한 용서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제시 더블류 크로스비는 어느 날 나무에서 어떤 자매를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데리고 갔을 때 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매가 예언자에게 어떤 사람이 그녀에 대하여 거짓을 말했다고 불평을 하자 예언자는 자신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취한 태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에 대하여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자주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잠시 여유를 갖고 그러한 오해가 생기도록 자신이 경솔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살피기 위하여, 그 사람이 비방하는 사건이 생겼다고 말하는 때와 장소와 배경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한 것이 발견되면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약점에 대하여 경고를 받을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자는 그 자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기억을 더듬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매를 괴롭히는 오해가 생긴만한 행동을 하거나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는 잠시 깊이 생각한 후 자신이 그렇게 했음을 시인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언자는 그 자매에게 자신의 명예와 그녀와의 우정을 걸고 그 자매에게 확실한 견해를 밝혔던 그 형제를 마음속으로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는 충고해준 예언자에게 감사하고 마음의 평화를 갖고 떠났습니다. (“편 콕스 앤더슨의 할머니, 마사 콕스의

비망록”에서 발췌한 이야기 중에서, 타이프로 친 문서, 교회 기록 보관소) 주된 잘못이 우리가 아닌 상대방에게 있다고 느낄 경우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평가해 본다면, 남을 좀더 쉽게 용서하고 자비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니파이삼서 12: 8) 경전에는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힘썼”(교성 84: 23)으며, 구세주께서는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임 줄 알리라”(교성 93: 1)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고 “너희는 성결케 되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르리니”(교성 88: 67~6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필요한 청결에는 순종과 성결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경전에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보고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 준

청결한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사도행전 9 : 6)라고 했고, 소년 사무엘은 엘리가 지시한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사무엘상 3 : 10)라고 말했으며, 니파이는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 : 7) “내가 이를 순종해야 하리라.”(니파이이서 33 : 33 : 15)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리이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누가복음 1 : 38)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순종하는 자세와 순수한 동기 및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들어 있으며, 주님의 뜻과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니파이삼서 12 : 9)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면 먼저 무엇이 화평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니”(갈라디아서 5 : 22)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성령을 불러오는 자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한번은 히버 제이 그랜드 대관장님이 사업상의 문제로 말다툼을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존 테일러 대관장님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테일러 대관장님은 쾌히 승낙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형제님들을 위하여 시온에 관한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테일러 대관장님은 노래를 매우 잘하셨으며, 또한 성스러운 찬송가를 아름답고 영적으로 잘 해석하셨습니다. 그분은 두 형제에게 찬송가 한 곡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 노래가 주는 효과를 눈치 채시고 테일러 대관장님은 시온의 노래 중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두 형제는 좋다고 했으며, 두 사람 다 그 노래를 매우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테일러 대관장님은 세번째 네번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두 형제는 “마음이 녹아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 악수를 하고 테일러 대관장님에게 시간을 많이 빼앗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은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40년 9월호, 522쪽)

이 원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족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평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들의 생활과 가정에 주님의 영을 불러들이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칠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며 “화평을 이룩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주”(모사이사서 15 : 18)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니파이삼서 12 : 10)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예언자들이 받은 것처럼 핍박을 받을 때에, 축복이 온다는 뜻일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셉 스미스는 핍박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높은 산에서 굴러 내리는 커다란 거친 바위와도 같습니다. 나는 완고한 종교적인 아집, 돈으로 매매되는 성직자의 직분, 법률가의 직분, 의사의 직분, 거짓말하는 편집자들, 거짓 맹세하는 판사와 배심원들, 그리고 폭도와 신성 모독자들과 온갖 부패한 자들의 영향을 입어 위증하는 집행 당국 등에 부딪혀 조금씩 마멸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악이 거친 돌과 같은 나의 이 모서리 저 모서리를 깨뜨려 둥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통에 꽂힌 부드럽게 잘 다듬어진 화살대가 될 것이니...”(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발췌,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38년, 287쪽)

요셉 스미스는 반대와 핍박이 사람을 단련시키고 부드럽게 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바울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순수한 동기로
주님에게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사도행전 9:6)



만들어 낸”(야고보서1:3)다고
말했습니다. 인내란 모든 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교성 122:7
참조)

온 세상의 빛

우리는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생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백성들의 빛이
되라”(니파이삼서 12:14)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한
행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실이
나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삶의
축복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행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은 니파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에게로 나아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나를 믿게 하며,
너희의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내 앞에
이르게 하려 내가 내 아버지의
율법과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니파이삼서 12:19)

저는 “애통하는”마음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주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소년 시절에
저의 아버씨가 야생마를 길들이는
일을 도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밧줄을 던져 말을 잡아
머리에 튼튼한 가죽 굴레를 씌운

다음 굵은 밧줄을 묶어 그 밧줄을 땅
속 깊숙히 튼튼하게 박은 말뚝에
매었습니다. 어린 망아지는 그 밧줄이
싫어서 네 발로 버티어 서서 온 힘을
다해 버둥거리며 며칠을 밧줄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해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망아지는 밧줄에 순응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우리가 망아지
가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 망아지가
우리의 인도를 받도록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밧줄을
손에 느슨하게 쥐고 말을 뒤따라오게
하면서 한참을 걸어가고 나서 말이
순순히 따라오면, “이 말은
길들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유순하고
순종하는 마음이며 주님께 열려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값을 알면서 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주저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생의 밧줄을
떼려 하고 있습니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중립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표를 필요로 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하시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제게서 취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모든 일에
순종할지니”, 솔트레이크시티 출판사,
1982년, 272쪽)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감

우리가 세 살 난 딸을 처음으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템플
스퀘어에 데리고 갔을 때, 딸은
저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북쪽 방문자 센터의 진입로를
올라갈 때 딸은 예수님상을
보았습니다. 제 딸은 제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제 얼굴을 쳐다보며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진지함이 담긴 표정으로
“어머나, 아버지! 예수님이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갔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
이를진대, 내가 저를 받아들일지니,
이같은 자라야 하나님 왕국에 거할 수
있음이라. 보라 이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버렸고 다시
취하였노라. 그러므로 땅 끝에 거하는
자녀아,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나아와 구원을 받을지어다.”
(니파이삼서 9:22) *

에스 마이클 윌콕스는 유타 대학교에
인접한 말일성도 신학 연구원 교수이며
드래퍼 유타 북 스테이크, 드래퍼 제10
와드 소속이다.

정말 훌륭합니다!

도나 신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로서 원주 지방부 대회로 가는 차 안에서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서울 선교부장의 보조였고 저는 선교부장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눈을 가늘게 뜨고는 앉은 자리에서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신 자매님, 저는 별로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부추기자, 그는 “별로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는” 그의 개종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한국의 매우 평범한 어린이였습니다. 장로들이 진해에 있는 그의 집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해 달라, 맛있는 것 좀 달라, 게임하자, 재미있는 놀이하자는 등 졸라대며 장로들을 귀찮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조금도 귀찮아 하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게 그를 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장로들을 마냥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장로들을 따라서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선교사들은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뒤이어 그는 침례를 받게 되었고, 장로들의 따뜻함과 사랑으로 인하여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열네 살이 되었을 때 첫 한국 대회가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열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대관장이자 예언자이신 김볼 대관장님이 미국에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한국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허락을 받기 위해 비회원인 부모님을 끊임없이

졸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진해에서 서울까지 버스로 일곱 시간이나 걸리는 것이 마음에 걸려 처음에는 선뜻 허락하지 않았지만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었으므로 마침내 허락하였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었으며 김볼 대관장님과 총관리 역원들의 훌륭한 말씀을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으나, 대회장 뒷편에 자리를 잡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분들을 잘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셨는데도 그분들과 멀리 떨어져 앉게 된 것이 몹시 아쉬웠습니다. 이 순수한 신앙을 지닌 소년은 머리를 숙이고 언젠가는 예언자와 총관리 역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여행 길에 올랐습니다. 추풍령에서 버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내려 근처 휴게실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그는 자동차 범퍼에 “가족은 영원해”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은 미국 차를 보았습니다.

그는 녹아 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뚝뚝 흘리면서 미국인 물문들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휴게실을 이리저리 헤매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가 전날 드린 기도가 일년 후가 아닌 바로 지금 응답되려고 합니다! 저기 휴게실 건너편에 예언자가 서 계셨습니다. 그는 많은 선교사들과 가졌던 긍정적인 경험들로부터 얻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급히 휴게실 건너편으로 가서 손을 내밀며 간단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김대운입니다. 저는 물론입니다.”

사람들을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위대하신 김볼

그는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이야기해 달라, 맛있는 것 좀 달라, 게임하자, 재미있는 놀이 하자며 귀찮게 따라다니던 한국의 매우 평범한 어린이들 중 하나였다.



대관장님은 그의 끈적끈적한 손을 꼬옥 잡으시면서 그를 테이블에 앉히셨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웃으시면서 손수건을 꺼내어 아이스크림 투성이가 된 소년의 얼굴을 닦아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몰몬인가요?” 김볼 대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소년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분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형제님이 부모님을 개종시킬 수 있습니다. 김 형제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진해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일곱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대관장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회에 참석하고 막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왔다니, 참으로 형제님의 헌신과 정성이 자랑스럽습니다. 나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나의 아내와 총관리 직원들을 소개하지요.” 그리고 대관장님은 이 소년을 정중하게 부인과 총관리 직원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그가 타고 온 버스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형제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소년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형제님, 교회는 한국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형제님을 필요로 합니다.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열의에 찬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김볼 대관장님은 이 젊은이를 꼭 껴안고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후 몇 년이 지나 그는 대학 입학 시험 준비로 공부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교회에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하신 예언자의 속삭임이 귓전에 울려 왔습니다. 그는 교회의 대관장님으로부터 받은 인정과 영광스러운 축복에 합당하게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와 친구들과로부터 오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실하게 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학교 학생 시절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진해에 있는 집에 잠시 와있는 동안 김 형제는 술을 안 마신다고 그를 조롱하였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너는 대학생이 된 지금도 줄곧 교회에 다니고 있지?”라고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닐 작정이야.” 김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많은 제약으로 숙박 받으면서 무슨 재미를 찾을 수 있겠니? 나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어!”라고 그 친구는 나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김 형제는 그 친구가 만나자마자 그에게 교회에 대하여 질문한 그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점심을 같이 하기 위하여 만났을때 김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네가 우리 교회 선교사를 만나면 재미있을지도 몰라. 아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거야.”

기쁘고 놀랍게도 그 친구는 “좋아!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좋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와 복음 공부를 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배울 때마다 그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며 몰몬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번째 토론을 마치고 그는 몹시 기뻐했으며 그의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와 세 누이와 아버지가 침례받았습니다. 일년 후, 김 형제는 선교사 부름을 받기도 전에 대전 선교부에서 봉사했고 또한 그곳에서 선교부장 보조로도 봉사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김 형제는 대학교 친구 일곱 명을 개종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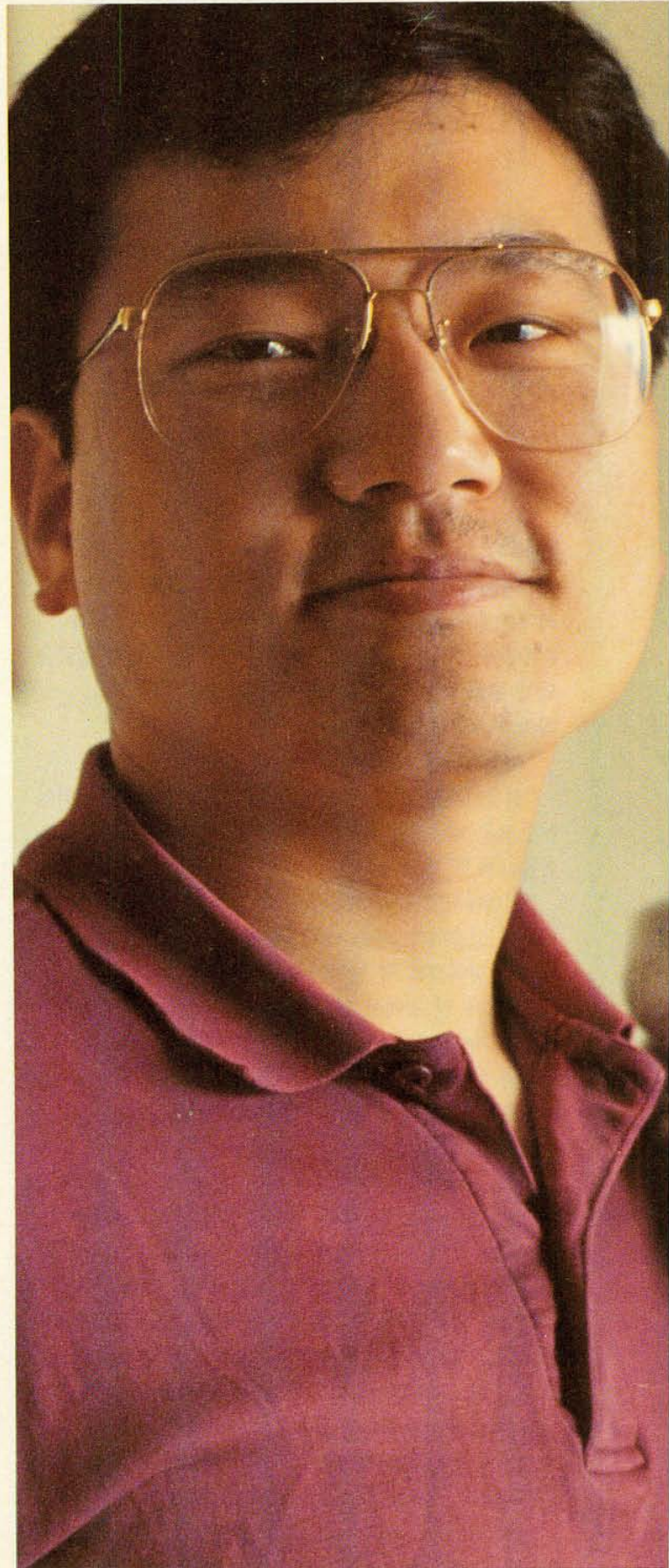
복음 선교사로서 김 형제는 많은 개종자를 침례 준 외에 한국 서울 선교부장의 보조로도 봉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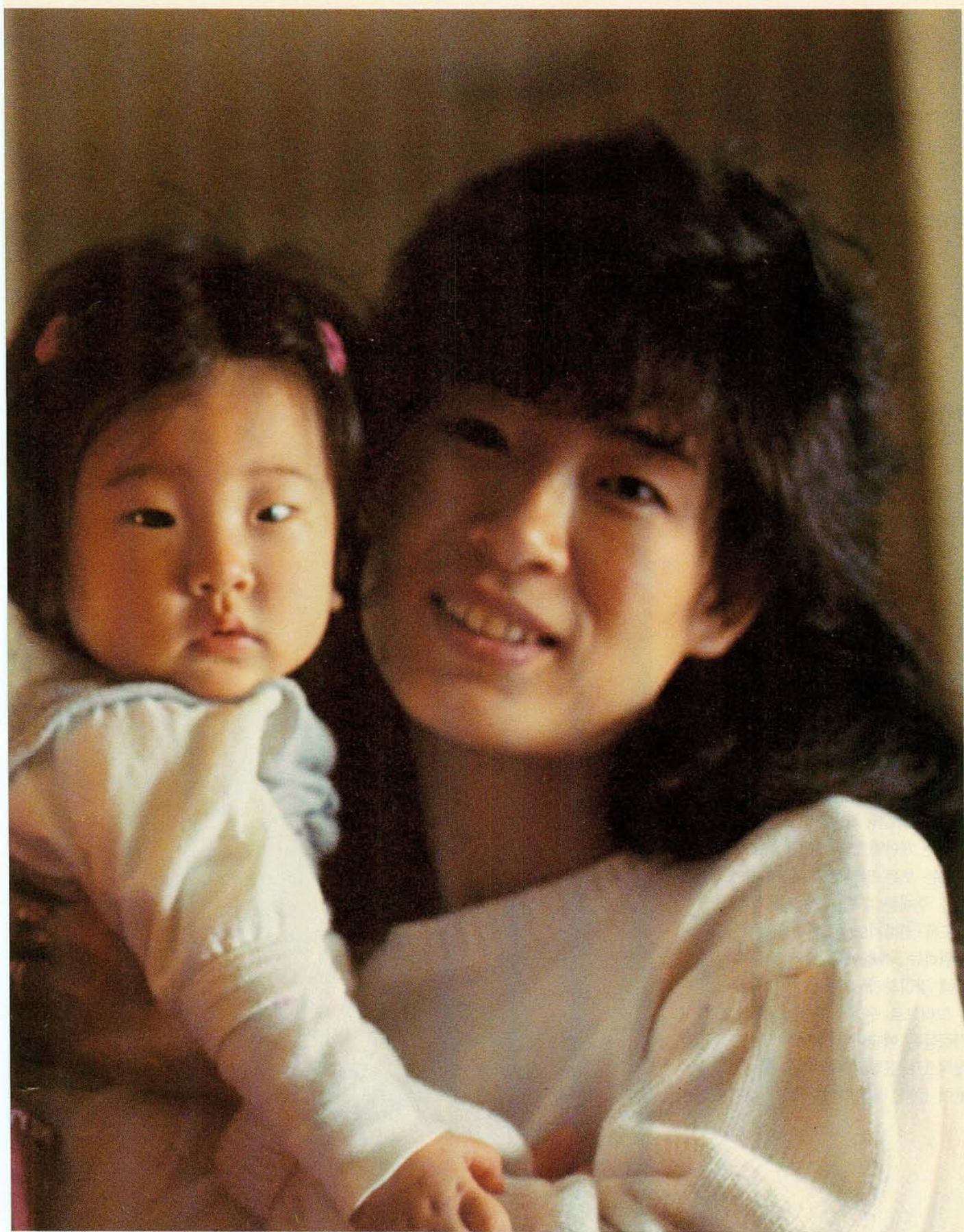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김 형제는 한국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으며 그곳에서 백진형 자매를 만났습니다. 곧 그들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김 형제는 백 자매에게 선교 사업을 하기로 김볼 대관장님과 한 약속을 이야기 했습니다. 백 자매는 이미 선교 사업을 마쳤지만 김 형제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두 번째 선교사 부름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 형제가 귀환한 지 열흘 후에 김 형제와 백 자매는 한국 서울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유진이라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후에 김 형제는 한국 강릉 지방부장으로 봉사했으며 현재 그와 그의 가족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동물 영양학 석사 학위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한국에 돌아와 대학 교단에 실 계획입니다.

김 형제는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간증하면서 언젠가 구세주께서 김볼 대관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를 껴안고 그의 귀에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속삭여 주실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도나 신 자매는 신호범(폴 에이치 신) 전임 한국 서울 선교부장의 부인이다.





우리의 신앙을

말일성도

리차드 지 오만

여러 해 동안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에서는 교회 회원들이 만든 예술품들을 수집해 왔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이 회원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말일성도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들의 초점이 더욱 좁아졌다. 지금은 말일성도를 주제로 다룬 몇 종류의 예술품만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 대부분은 말일성도 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자 창작한 것들이다.

그러나 어떤 말일성도 예술가들은 아름답지만 반드시 종교적인 주제를 다룬 것들이 아닌 작품들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술가들이 작품 속에서 복음의 주제를 표현하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장려하려고 애쓴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며 또 때로는 모든 말일성도 예술가들에게 복음 주제를 다루는 것들을 창작해 주도록 권하기도 하고 박물관에서 후원하는 국제 예술 경연 대회를 통해 장려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집해 온 작품들은 예술이란 용어가 많은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훨씬 더 잘 보여 준다. 복음의 메시지가 세계로



표현함

예술

뺏어 나가며 많은 문화권 내에서 교회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예술이 직물, 도자기, 회화, 대생, 도기, 보석, 퀴팅친, 자수, 천 짜기, 그리고 많은 다른 매개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물관에 소장된 대부분의 예술품은 민속 예술, 즉 우리들 자신의 문화적 형태로 표현된 우리 삶의 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에 실린 것들은 참된 말일성도 예술품의 몇 가지 견본들이다. 그것들은 교회내의 많은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상기시켜 주며, 또한 우리에게 정치, 경제 또는 기술적인 힘이 아니라 신앙과 성약과 선행의 중요함을 상기시켜 준다. *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 선임 관리자인 리차드 지 오만 형제는 이스트 밀크리크 유타 스테이크의 회원이다.

“첫번째 시험” 인도네시아,
요자카르타의

조니 수산도 형제가 만든 1미터 길이의
남결포. 3대째 남결포 제작을 하고 있는
수산도 형제는 이 작품을 교회 역사 및
예술품 박물관에서 후원하는
1991년도 국제 예술 경연 대회 때
만들었다.



맞은편 : 스위스 태생의 가구 제작자인 프리드리히 디트리히는 이 228센티미터 높이의 옷장을 1986년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에서 만들었으며, 이전에 오스트리아 인이었던 로자린드 립과 그녀의 아들인 게르하르트가 그것을 장식하였다. 1830년대 북부 오스트리아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닮은 이 장식은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선교사들, 솔트레이크 성전, 그리고 침례를 묘사한다. 립 자매는 그녀를 지도적인 민속 예술가로 인정해 준 고향으로 돌아갔다.



후에 1918년에서 1945년까지 교회 대관장으로 봉사했던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봉성한 말일성도 선교사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솔트레이크의 템플 스퀘어와 일본의 전통적인 부채 위에 그려진 와사치산맥이 묘사된 이 칠보 꽃병(금속 위에 옷칠 함)을 습득하였다.

“환영의 장식판” 유타주 미도우의 조셉 에이치 피셔(1856~1940)가 만든 채색된 목조 부조품. 이 장식판은 미도우 와드 연단에 있던 원형이거나 또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만든 것이다. 비둘기와 꼭 잡은 손 그리고 장미를 상징적으로 묘사하여 와드의 회원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할 필요성과 사랑을 “장미처럼 피어” 나도록 도울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THE GL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COME TO THE HOUSE OF THE
GOD OF JACOB HE WILL
TEACH US OF HIS WAYS

AND THE DESERT
SHALL REJOICE AND
BLOSSOM AS THE ROSE



PRES. JOHN TAYLOR



SALT LAKE TEMPLE



PRES. JOSEPH SMITH



ST. GEORGE TE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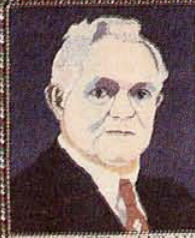
PRES. BRIGHAM YOUNG



LOGAN TEMPLE



SEA GULL MONUMENT



PRES. DAVID O. MCK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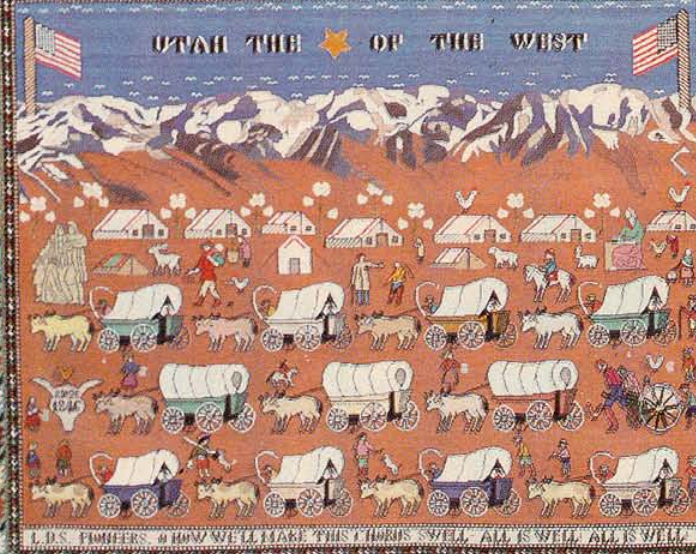
LOS ANGELES TEMPLE



MANTI TEMPLE UTAH



PRES. LORENZO SNOW



UTAH THE STAR OF THE WEST

LDS PIONEERS WHO WELLS HAD THIS THORNS SWELL ALL IS WELL ALL IS WELL



PRES. WILFORD WOODRUFF



LAHAINAHA TEMPLE



LARAMIE TEMPLE



PRES. HEBER GRANT



IDaho FALLS TEMPLE



PRES. GEORGE A. SMITH



ARIZONA TEMPLE



PRES. JOSEPH F. SMITH

맞은편 : 루벤 오우조니안(1894~1974)과 그의 아내인 매리(1908~1991)는 1950년대초 시리아의 알레포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이 아르메니아식 카페트를 짜기 시작했다. 아르메니아의 융단 제조자의 먼 후손이었던 그들은 1955년 그 작품을 완성하였다. 그 182×243 센티미터의 카페트에는 교회의 모든 대관장들과 그 작품이 완성될 당시에 사용 중이던 성전들이 묘사되어 있다.



왼쪽 : 손꼽히는 나바호 인디언 도공 중의 한 사람인 뉴 멕시코, 블룸필드의 루시 맥켈러비는 1988년에 이35센티미터 높이의 항아리를 만들었다. 그것은 레이맨, 레뮤엘, 니파이, 샘을 묘사한 물문경을 나타내고 있다. 항아리 하부의 뱀을 닮은 형상은 푸에블로 인디언들에게 어떻게 살지를 가르쳤다는 “물의 뱀” 또는 “하얀 신”을 나타낸다. 이러한 형태의 도기는 녹로없이 손으로 만들어져서 광물과 끓인 식물 즙에서 얻은 물감으로 칠해지고 나무를 때는 덮개 없는 화로에서 구어졌다.

오른쪽 : 리하이의 생명 나무의 시현을 묘사한 지름이 91센티미터인 이 지름의 장식판은 에쿠아도르에서 온 직업 예술가인 베네주엘라 카라카스의 빅토르 데 라 토레스가 조각한 것이다.



아래 : 1980년대 초 파나마 샌블레스 섬의 쿠나 인디언 자매가 만든 이 43센티미터 넓이의 몰레스는 솔트레이크 성전을 묘사한 것이다. 몰레스는 여러 겹의 천을 꿰메어 아플리케와는 반대로 알맞은 색깔이 나타나도록 그 겹친 천들을 잘라내어 만든다. 몰레스는 전통적으로 블라우스의 앞 판으로 사용되었다.



동화시



위쪽 : 예수님의 침례를 묘사한 이 43센티미터 넓이의 물래스 역시 1980년대 초에 샌블레스 성의 어떤 자매가 만든 것이다. 태양은 그 사건을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다. 나무 위의 앵무새는 샌블레스 인디언에게는 성신을 나타내는 비둘기와 똑같은 것이다. (뒷표지 안쪽에 나온 예술품 참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사랑

로이스 오웬 터커

나는 1986년 9월의 그날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한다. 일하러 갔던 것은 기억할 수 있지만 집으로 돌아온 것은 기억할 수가 없다. 또 그날 저녁에 솔트레이크 슈거하우스 스테이크의 청녀 회장으로서는 새로운 워드 청녀 회장과 함께 참석했던 모임도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그 모임 후에 자기를 방문해서 오후 6시 30분경에 그 집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아마 솔트레이크시 동쪽의 에미그레이션 캐년쪽으로 차를 몰고 가려 했을거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고속으로 차를 몰던 만취한 어떤 운전자가 내 차를 들이받았기 때문이었다.

내게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은 아주 단편적으로 남아 있으며 또한 그것은 내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몇 달간 고통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로 인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며 우리들이 거의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살피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신하였다.

아마 나는 그 다음에 있을 스테이크 청남 청녀 위원회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가을 빛에 물든 나무와 덤불을 보며 휴식을 취하러 에미그레이션 캐년으로 차를 몰고 갔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일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도로의 구부러진 지점으로 차를 몰 때 다른 차가 내 차선으로 뛰어들었다. 우리는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내 차는 완전히 망가졌고 나는 부서진 차 속에 끼인 채로 있었다. 마침내 구조대가 나를 차 밖으로 끌어 냈을 때, 그들은 내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에게 대해 병원에 보내진 보고서는 “사망, 또는 사망 직전”이라는 내용이었다.

비장이 두 군데가 파열하였고 횡경막이 찢겨서 터졌으며 왼쪽 폐가 손상을 입었다. 나는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심각한 손상을 많이 입었으며 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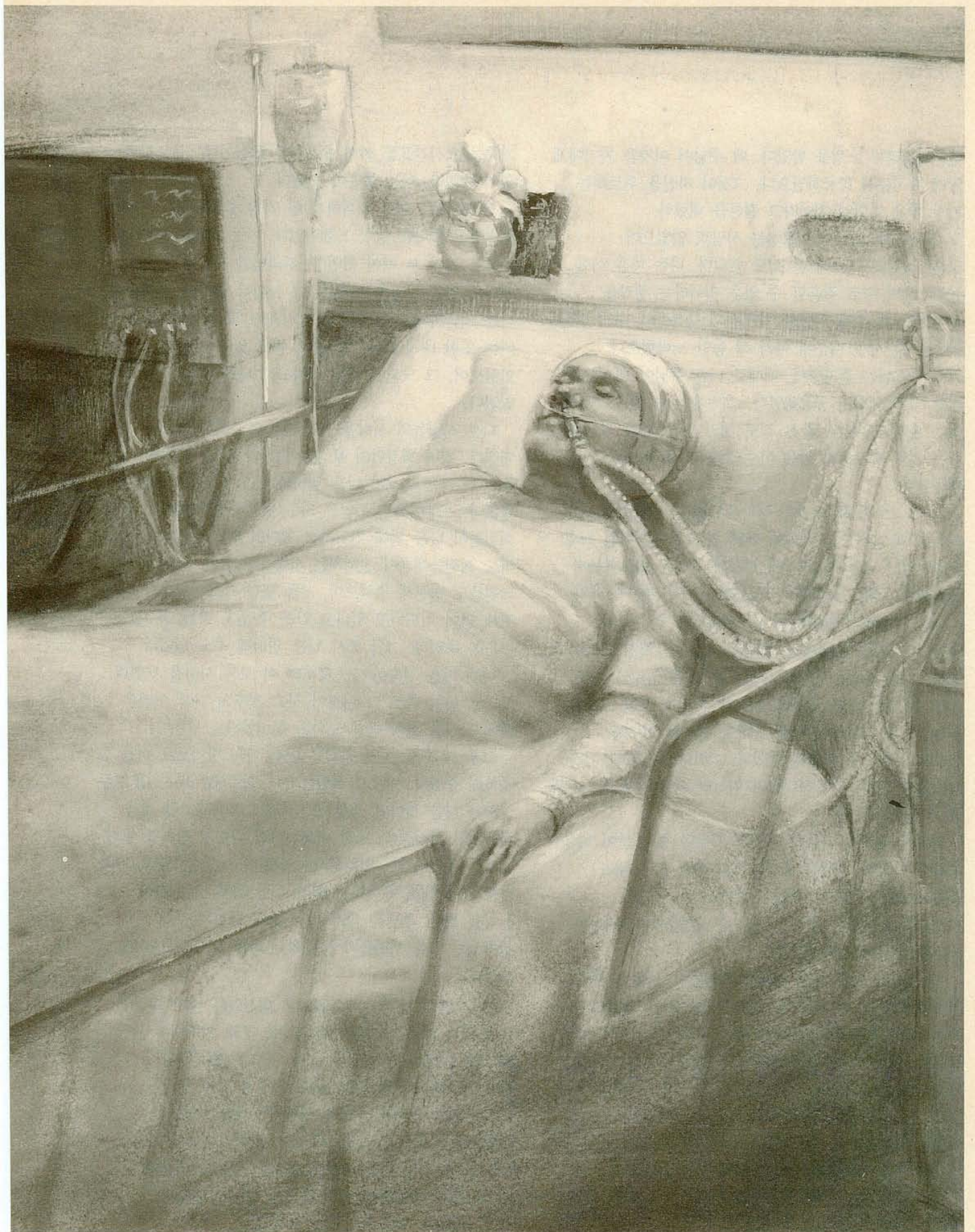
다리도 그 어떤 것에 찢려 신경 중추가 상하였다. 왼쪽 팔이 잘려졌으며 오른쪽 발목도 부러졌고 머리에도 심각한 열상들이 있었으며 골반도 네 군데나 부러졌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내 폐를 팽창시키려고 튜브를 삽입할 준비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신에 그들은 나를 수술실로 밀어 넣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내 몸속의 부상이 너무 심해서 폐에 끼울 튜브의 구멍이 나를 죽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병원 측에서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던 유일한 신분증은 내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성전 추천서였다. 그들은 그 신분증에서 우리 감독님인 존 푸루어스 형제님의 이름을 알아내었으며, 감독님이 우리 어머니께 연락하셨다.

어머니와 막내 남동생인 카알이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두시였다. 그때 나는 이미 수술을 마친 후였으므로 벨슨 박사는 허락 없이 수술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 병원에서 우리 가족에게 곧장 연락을 할 수가 없었으며, 내 부상이 너무 심해서 응급 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어머니는 나의 부상이 매우 심한 것을 알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

카알은 나의 여동생인 마거리트에게 전화를 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나머지 가족들에게 알려 주라고 하였다. 그녀는 즉시 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다. 마거리트는 강하고 고요한 “나를 신뢰하라. 그녀는 내 손 안에 있노라.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노라. 나는 전능하니라.”라는 느낌을 받았다. 마거리트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와 같이 된다는 뜻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아버지는 그 일이 있기 2년 전에 돌아가셨다. 마거리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다시 내가 회복될 것이며, 곧



결혼하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왜 주님이 이것을 자기에게 알려 주시는지 궁금하였으나, 그것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당시에 나는 데이트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결혼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나는 마흔 아홉 살이었으며 결코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굳힌지가 꽤 오래 되었다. 축복사의 축복문이 내게 결혼을 약속해 준 사실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노력했으나 그때까지 나는 혼자였다. 때때로 나는 주님이 내 존재를 정말 알고 계신지 궁금하였다. 그분께 나는 아주 보잘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아주 보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고로 인해 그같은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의 여동생 에스더는 그 사고에 대해 듣고서 활동적인 교회 회원이었던 나를 주님이 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했다. 그때 에스더의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내가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주님께서 진실로 나를 보호하셨음을 안다. 그분은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으며, 나를 불구로 만들 수도 있었던 부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또한 그분은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일을 올바르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므로써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위대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힘을 느끼게 해 주셨던 것이다.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 카알과 감독단 중 한분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카알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회복되리라고 약속해 주었다. 후에 그는 자신도 마거리트가 받았던 것처럼 내가 곧 결혼하게 되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나는 인공 호흡기 및 상태를 체크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에 연결된 채, 일주일 동안 특별 치료를 받았다. 처음 며칠 동안 내게 면회가 허락되었던 사람들은 우리 가족 말고는 스테이크 부장님 뿐이었다. 나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주 강한 약물 치료를 받았으므로 처음 두 주 동안의 일은 거의 기억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면회하러 오는 시간이 제한되었었다고 기억된다.

특별 치료가 끝난 후 나는 깨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무척 의존적이 되었으며 가족들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은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해서

가족들은 시간표를 짜서 순서대로 돌아가며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 나는 통증이 심했다.

계속적으로 내가 의식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토록 안전한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그 느낌이 얼마나 강했던지 나는 지금까지도 그 기분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없다. 나는 또한 내게 대해 가족들이 품고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 느낌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느낌은 더욱 커졌다. 청년 회장단의 보좌들이 거의 매일 방문해 주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염려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프루어스 감독님은 자주 방문하셔서 워드 회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 주셨다. 나는 워드 회원들에게서 전해지는 사랑을 느꼈다. 스테이크 역원들도 방문해 주었으며, 그들 또한 스테이크에서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직장 친구들도 방문해 주었다. 그들 역시 나를 염려해 주고 있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모든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사랑이 사고 직후의 가장 어려운 때에도 나를 살아 남게 도와준 힘이었다고 믿는다.

그후 여러 달 동안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 모든 상처가 나을 것이며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리란 것을 처음부터 확신했다. 또한 회복된다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조금이라도 미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나쁜 것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몸이 회복 되는 데에 신경을 썼다. 주님은 내가 그 사고에 대한 공포에 집착하는 대신 사람들과 사랑에 주의를 모으도록 도와 주셨다.

2주일 반 동안 입원해 있던 후 의사들은 내가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 가족에게 나를 요양소로 보내도록 권했다.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고 생각하자 나는 무척 겁이 났다. 카알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여쭙어 보았던 기도가 생각난다. 가족도 있었고 그들을 의지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의지하며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겼다.

9월 20일에 나는 요양소로 옮겨 갔다. 약물 치료

“주님은 축복을 통해 그분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며, 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터커 자매는 결혼식 날 남편인 제리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는 내 주변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더 잘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일 주일 동안 나는 열심히 체력을 단련시켰고, 골절된 상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배웠다. 그 다음에 나는 카알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카알과 그의 아내에게 감사했다. 집에 있는 동안 행복을 느꼈다. 카알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 방으로 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곤 하였다. 그들의 도움으로 나는 쉽게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다.

병원에서 있는 동안은 너무 강한 약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곳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어떤 것이라도 한 가지 생각에 주의를 모을 수가 없었지만, 카알의 집에 있는 동안에는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다. 카알의 집에서 머무는 처음 며칠 밤 동안은 잠드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내가 간신히 살아 있기 때문에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밤에 깨어 있을 때는 사고에

대한 공포와 상처들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하였다. 그때 나는 죽거나 영원히 불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 두려움에 감싸이게 되면 나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였으며, 그러면 곧 마음이 평온해지며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축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커다란 평안에 싸인 채로 잠들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다.

사고가 일어난 지 약 7주 후에 나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내가 집에 도착한 날 가족들은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 주기 위해 거의 하루종일 집에 있으며 나를 도와 주었지만, 첫번째 일요일에는 혼자 집에서 보냈다. 혼자 보내기가 무척 어려웠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던 후라서 나는 그날,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욱 깊은, 끔찍한 외로움을 느꼈다. 사고 이전에는 내가 독신이라는 생각과 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한 좌절을 그런 대로 극복했었지만, 그러나 사고를 당한 뒤 나를 것처럼 잘 돌보아 준 가족들의 사랑에 싸였던 후인 그때 나는 내가 혼자 사는 생활을 더 이상 견디 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날 오후에 제리 터커 형제가 방문했다. 우리는 그가 청녀 담당 고등 평의원으로서 청녀 프로그램에 참석할 때에 서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나를 계속 방문하는 것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 후 그가 청혼하였을 때 나는 냉정을 찾기가 어려웠다. 나는 내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확신시켜 줄 다른 사람들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주님이 그 사고의 위기와 시간이 걸리는 회복기 동안 내게 아주 가까이 계셨고 가족들이 그토록 나를 강하게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의 판단에 덧붙여 그들의 동의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제리의 청혼에 대해 기도해 보기 시작하였다. 나는 커다란 평화로움이 나를 씻어내리는 것으로 응답받았다. 그때 나는 내가 결혼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또한 주님이 나를 홀로 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과 그분이 내게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제리와 나는 1987년 2월 12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였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확신을 나의 모든 독신 친구들과 나눌 수 있기를 원했다. 우리는 가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오래지 않아서 나는 완전히 나았다. 그러나 나는 결코 이전과 똑같은 자신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웠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안다.

나는 기적이 보통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모두 특별한 것이다. 지금 나에겐 그 사실이 가장 생생하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친절하신지 알지 못하였다. 물론 지금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완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중 누가 아는 것 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는 설혹 내가 죽었거나 불구가 되었을지라도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가장 좋게 여기시는 방법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으리란 것을 안다.

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나는 나를 위해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힘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만일 어떤 사람들에게 고��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나는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계셨듯이 그들과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랄 것이다. 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고 전에 우리 가족들이 매일 나를 위해 얼마나 여러 번 기도했는가?

나는 기쁨에 대해서도 배웠다. 주님은 축복을 통해 그분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며, 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다. 지금 나는 우리가 행복한 것이 그분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나는 경전에서 기쁨에 관련된 성구들을 찾았다. 이 복음이 기쁨의 복음인 것을 나는 지금에야 더욱 분명히 알았다.

또 나는 건강의 가치도 배웠다. 육체를 갖는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며, 따라서 건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돌보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토록 많은 축복을 받았으므로 여전히 나는 주님께 빛을 졌다고 느낀다. 이제까지 갚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빛을 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상환'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나의 사랑을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며, 또한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하신다. * 로이스 오웬 터커 자매는 솔트레이크 슈거하우스 스테이크의 에머슨 워드 회원이다.



“엘미의 물기에서 침례함”, 헨리 로버트 브래질 작

아이티에서 초기에 교회로 개종한 브래질 형제는 아이티의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 현재 유다주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역시 및 예술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본 작품(기타 60 x 세로 99센티미터)은 1988년에 제작된 것이다.



카리브해 국가인 아이티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 속에서 크나큰 힘과 희망을 얻는다. 복음은 그들이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며, 윌헬미나 프리스 올리비에 자매 및 그녀의 자녀인 장 엠마뉴엘, 쌍둥이 다니엘과 데이비드, 산드라의 가족처럼 가족들을 단합시켜 준다. (“복음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된 아이티 성도들”, 10쪽 참조)